

한국어 주제어와 초점에 관한 몇 문제

최 규 수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kschoi2@hyowon.pusan.ac.k

1. 들어가기

국어학을 연구하는 필자의 눈으로 보면, 한국의 주제어 연구가, 영어권의 연구, 특히 미국의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주제어와 초점 연구의 시작 시점이나 논의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국어학의 다른 주제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에 국어학 연구에서 유의할 일이 있다. 먼저, 외국에서 연구되는 대상 언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언어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의 언어들은 형태 구조나 통사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류 또는 유형들로 나누어진다. 이런 점은 어떤 문법 범주가 어떤 언어에는 실현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그 범주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동일한 문법 범주가 언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문법 범주에 관한 연구는, 당연히 개별 언어의 유형적 특성과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한국어 주제어(와 초점)에 관한 몇몇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주제어 연구에서 월의 어떤 성분이 주제어임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형식을 주제어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어떤 성분이 주제어이고 어떤 성분이 초점인가를 규정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성분을 주제어로 보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주제어(와 초점)과 관련하여 논의된 성분들이 월 또는 텍스트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살펴, 달리 말하자면, 기능적 동일성과 분포적 동일성을 살펴, 그것들에 합당한 문법 범주들을 부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주제어가 '중요한/덜중요한'이나 '신/구', '알려진/안알려진', 또는 '주어진' 따위와 같은 정보 개념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었는데, 이들 용어가 엄격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용어들이 가리키는 외연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개념에 바탕을 둔 논의 자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한국어 주제어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자료들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어 주제어에 관한 논의는 한국어의 성분의 구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앞선 연구에서는, 그 출발점이 한국어의 특정한 문법 현상, 곧 접임자말월의 구조, 도움토씨 문법적 기능, 비전형적인 '를'의 쓰임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논의되었다고 생각된다.

2. 정보와 토씨의 관계

앞선 연구에서, 한국어 주제어에 관한 논의가 정보적으로는 '알려진, 덜중요한' 따위와 관련하여 논의되었고, 형태·통사적으로는 (i) 월머리에 놓인 요소, (ii) '은/는' 요소, (iii) '이/가' 요소 ((iv) '을/를' 요소) 따위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따라서 정보와 토씨의 관계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1. 정보의 두 종류: 알려짐과 중요함

정보는 어떠한 월 구성요소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하여 들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말할이의 가정을 나타낸다. 그런데 앞선 연구에서, '알려진'이나, '한정적인, 주어진, 문맥에 묵인, 구정보 또는 오래된' 따위의 용어들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이 글에서는 아래의 논의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정보는 (i) 어떤 이름씨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과의 관계로 파악되는 것과, (ii) 다른 구성요소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전달의 중요성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i)에 대하여 살펴 보자. '알려진/안알려진'(known/unknown)이란 담화상황에서 월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이름씨구의 쓰임'과 관련하여 정의된다. 모든 이름씨구는 실제 담화상황에서의 쓰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먼저 이름씨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들을이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할이가 가정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가에 따라 '한정적인'(anaphoric) 요소와 '비한정적인'(nonanaphoric) 요소로 나뉜다. 또 담화상황에 처음 언급되는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가에 따라 '처음 언급되는' 요소와 '이미 언급된 (주어진)'(mentioned, given) 요소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한정적인' 요소이면서 '이미 언급된' 요소를 '알려진' 요소라 하고, 그렇지 않은 요소를 '안알려진' 요소라 한다. 이제 한국어에서 '한정적인, 이미 언급된' 요소로서 '알려진' 요소와 '비한정적'이거나 '처음 언급되는' 요소인 '안알려진'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한정적인 이름씨구와 비한정적 이름씨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한정적인 이름씨구의 목록

- ㄱ. 직접 가리킴말(deictics) 또는 대용말(proform): 나, 너, 그, 그녀, …; 이것, 그것, 저것, …; 여기, 저기, 거기, …; 지금, 오늘, …
- ㄴ. '지시사 + 이름씨':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 이 쪽, 그 쪽, 저 쪽, …
- ㄷ. 고유이름씨와 유일지시적 이름씨: 영이, 칠수, …; 해, 달, 낙동강, …
- ㄹ. 총칭적으로 해석되는 이름씨구: 사람, 개, …; 모든 사람, 모든 개, …

(2) 비한정적인 이름씨구의 목록

- ㄱ. 담화에 처음 등장하는 지시 대상을 나타내는 이름씨구: 어떤 사람, 한 사람
- ㄴ. 물음을 나타내는 '매김씨+이름씨'로 된 이름씨구: 무슨 일, 어느 사람, 어떤 사람
- ㄷ. 물음말: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이러한 (1)의 '한정적인' 정보와 '언급된' 정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ㄱ과 ㄴ의 이름씨구들은 항상 언급된 요소로 해석되기 때문에, 항상 알려진 요소가 된다. ㄷ의 고유이름씨와 유일지시적 이름씨, ㄹ의 총칭적으로 해석되는 요소는 처음 언급된 요소로 쓰일 수도 있고, 이미 언급된 요소로 쓰일 수도 있다. (2)에서, ㄱ의 '어떤/한 사람'은 항상 처음 언급되는 요소로 쓰인다. ㄴ과 ㄷ의 물음을 나타내는 요소는 처음 언급되는 요소로 쓰일 수도 있고, 이미 언급된 요소로 쓰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알려진/안알려진' 정보라는 것은 '중요한/덜중요한' 정보라는 것과는 구별된다. 월의 쓰임에서 보면, 월 구성요소는 말할이가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것과, 반드시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덜중요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중요한/덜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전제'(presupposition)와 '초점'(focus)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요소는 '초점'에 해당하고, 덜중요한 요소는 '비초점'에 해당한다.

진리조건적인 관점에서 보면, 월의 정보 구조는 전제와 초점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전제와 초점은 말할이의 처지와 들을이의 처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말할이의 처지에서 보면, '전제'는 어떠한 월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미 참으로 주어진 것으로 믿고 있는 부분이고, '초점'은 그것이

참이라고 단언하는 부분이다. 들을이의 처지에서 보면, 어떤 담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말할이가 가정한 전제가 들을이에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초점은 월 전체의 진리값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부분으로서, 들을이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초점은 말할이나 들을이 모두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초점은 의사 전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고, 전제에 속하는 비초점은 덜중요한 정보가 된다.

(3) 가: 누가 그 영화를 보았습니까? (누=물음말)

나: 영이가 그 영화를 보았다.

(4) ㄱ. 전제와 초점

전제: 누군가가 그 영화를 보았다.

초점: 누군가='영이'

ㄴ. 정보 구조

영이가 그 영화를 보았다.

중요한 덜중요한 덜중요한

이러한 '알려진/안알려진'과 '중요한/덜중요한'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알려진 정보가 중요한 정보로 해석되기도 하고 덜중요한 정보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안알려진 정보는 항상 중요한 정보로 해석된다.

2.2. 정보의 표지로서의 토씨

이제 그러한 정보와 토씨의 관계를 좀더 살피고자 한다. 앞선 연구에서 {는}과 {이/가}, 또는 {를}의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어를 논의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의 논의의 문제점이 정보와 토씨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으로써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한국어에서 '중요한/덜중요한'의 정보 기능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표지는 없다. 그러나 한국어의 정보 구조는 자리토씨나 도움토씨의 쓰임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토씨와 정보의 관계

[자리토씨]

ㄱ. 월머리에 놓이는 {가} 요소는 항상 중요한 요소로 쓰인다.

ㄴ. 그 나머지 자리토씨 요소는 중요한 또는 덜중요한 요소로 쓰인다.

ㄷ.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자리토씨 요소들은 '선택지정'으로 해석된다.

[도움토씨]

ㄱ. 월머리에 놓이는 {는} 요소는 항상 덜중요한 요소로 쓰인다.

ㄴ. 그 나머지 도움토씨 요소는 항상 중요한 요소로 쓰인다.

ㄷ.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도움토씨 요소들은 '범위 관계'의 초점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중요한/덜중요한'을 전제와 초점의 관계로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제와 초점은 '선택항'과 '나머지항'을 설정함으로써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월의 형성에서 이름씨구들이 풀이씨와 결합할 때, 풀이씨의 선택 제약에 따라 선택 가능한 요소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 이 때, 선택 가능한 요소들의 집합을 '선택 영역'이라 하고, 그 선택 영역 가운데에서 선택된 요소를 '선택항'이라 하고, 선택되지 아니한 곧 선택항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나머지항'이라 하자. 한국어의 자리토씨와 도움토씨는 이러한 선택항과 나머지항의 관계에서 달리 해석된다.

자리토씨 요소는 초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초점으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항의 존재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초점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나머지항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자리토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머지항을 가정할 수는 있으나, 자리토씨

의 기능적 특질을 규명하는 데는 비관여적이다.

도움토씨의 경우에는 선택항과 나머지항의 관계가 자리토씨와 다르다.

- (6) 영이는 학교에만 갔다.
- (7) 영이는 학교에도 갔다.
- (8) 영이는 학교에는 갔다.

(6)~(8)은 '영이가 간 곳'의 일정한 집합(범위)이 있으며, 선택항인 '학교'가 이 범위에 든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월들은 선택항인 '학교'와 나머지항들이 이 범위에 어떻게 포함되는가 (이러한 관계를 '범위 관계'라고 한다)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도움토씨의 전제와 초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도움토씨의 전제와 초점

	{만}	{도}	{는}
전제	선택항 포함	나머지항 포함	나머지항 포함/배제
초점	나머지항 포함?	선택항 포함?	선택항 포함?

결국 도움토씨는 어떤 일과 관련한 이름씨의 일정한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점의 내용은 선택항과 나머지항이 그 범위에 어떻게 포함되는가 하는 '범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도움토씨는 물음이나 부정의 영역 안에 들지만, 그 물음이나 부정은 그 범위 관계에 알맞은 적절한 다른 도움토씨를 선택하여 쓰게 된다.

이상에서 쓰인월에서 자리토씨와 도움토씨의 기능을 전제와 초점으로 분석하여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리토씨는 선택항이 초점의 형성에 관여할 뿐, 나머지항은 초점의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도움토씨는 선택항과 함께 나머지항이 초점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말은, 자리토씨 요소에 선택되는 선택항은 그 선택항을 제외한 나머지항과 대립을 형성하지 않는데 비하여, 도움토씨 요소에 선택되는 선택항은 나머지항과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 보면, 주제어를 '알려진' 요소이면서 '덜중요한' 요소를 주제어로 규정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으로는 주제어를 한정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제는 '알려진, 덜중요한' 따위의 정보를 '주제어가 되는 조건의 하나'로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주제어를 '월머리에 놓인' 요소이면서, '알려진, 덜중요한' 요소로 한정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시도는 '왜 그러한 요소를 주제어로 보아야 하는가, 왜 다른 요소들은 주제어로 보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3. 주제어의 유형과 범위

3.1. 주제어의 유형

주제어는 텍스트의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텍스트의 구성 방식은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는 쓰인월의 구성요소이며, 쓰인월은 화제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최소 단위이다. 따라서 주제어는 앞선 월과 뒤따르는 월과의 위음 관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곧 어떤 주제어가 쓰인 월이 있으면, 그것은 어떠한 월 다음에 놓이며, 또 그 뒤에 어떠한 월이 뒤따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월은 '주제어-설명어' 구조로 짜이니까, 주제어와 앞뒤 월과의 관계에 따라 살필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ㄱ. (S₁)
 ㄴ. S₂ = T + R (주제어+설명어)
 ㄷ. (S₃)

(4)에서 S₂는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월이고, S₁과 S₃는 각각 S₂에 앞선 월과 뒤따르는 월이다. 여기서 S₁ 과 S₃에 ()를 둔 것은, S₂가 S₁과 S₃의 문맥 속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통문법이나 형식문법에서는 S₁과 S₃를 고려하지 않고 S₂만을 관찰했는데, 그것은 주제어의 담화문법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분석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주제어를 월머리에 놓인 ‘이/가’ 요소와 ‘은/는’ 요소로 보고, 월머리에 놓인 ‘은/는’ 요소를 ‘중심 주제어’, 월머리에 놓인 ‘이/가’ 요소를 ‘도입 주제어’라 한다.

- (2) ㄱ. 영이는 학교에 간다.
 ㄴ. 영이가 학교에 간다.

(2)의 ㄱ과 ㄴ은 두 가지 점에서 대조된다. 먼저 정보 구조를 보면, ㄱ은 ‘덜중요한 + ...’으로 짜이는데 비하여, ㄴ은 ‘중요한 + ...’으로 짜인다. 다음에 텍스트 구성에서 보면, ㄱ이 나타나는 환경과 ㄴ이 나타나는 환경이 달라, 보통의 경우에는 이 둘은 교체되어 쓰이지 않는다. 곧 (2)의 ㄱ과 ㄴ은, 한 음소의 변이음들과 유사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ㄱ의 ‘영이는’과 ㄴ의 ‘영이가’는 하나의 성분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중심 주제어와 도입 주제어는 텍스트 구성에서도 상보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3.2. 주제어의 범위

장면제시어

월머리에서 주제어 앞에 ‘~에(는), ~에서(는)’ 따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을 이 글에서는 ‘장면제시어’라 한다. 장면제시어는 그것이 제시하는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연는’ 역할을 한다.

대조 초점의 문제

도움토씨 {는}은 월머리에 놓일 때는 중심 주제어의 표지로 쓰이지만, 월머리에 놓이지 않을 때는 ‘대조 초점’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영이는 학교에는 갔다” ‘학교에는’의 {는}은 ‘도, 만, ...’ 따위의 다른 도움토씨와 마찬가지로 ‘범위 관계’의 초점으로 이해된다. (5)는 ‘영이가 학교에 갔다’는 참이고, 선택항인 ‘학교’이외의 나머지항인 다른 참여자가 있으며, 그 나머지항이 ‘영이가 어디엔가 갔다’와 관련하여 모두 거짓이 됨을 전제한다. (다른 해석으로는 나머지항이 ‘영이가 어디엔가 갔다’와 관련하여 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앞선 연구에서, 월머리에 놓인 {는}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에 강세가 부여되면 ‘대조 초점’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주제어는 월의 쓰임에서의 문법 현상이기 때문에, 그 월이 쓰인 담화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담화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주장이 그럴 듯해 보이지만, 담화상황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대조란 단순히 어떤 일의 참여자가 있을 때, 그 일의 참여자 (선택항)와 관련하여 연상되는 어떤 다른 참여자 (나머지항)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조는 그러한 나머지항의 존재를 전제하고, 또 선택항과

나머지항의 '범위 관계'의 초점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어떤 이름씨를 선택할 때, 당연히 그 선택된 이름씨 (선택항)와 관련되는 다른 이름씨 (나머지항)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나머지항을 그냥 연상하는 것과, 발화에서 실제로 그 나머지항에 대한 '포함 또는 배제'를 어떤 언어 형식에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리토씨는 나머지항을 포함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하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비초점으로 쓰이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초점 (선택 지정)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3) 가: 누가 학교에 갔습니까?
 나: 예, 영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다: 아니요, (영이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
철수가 학교에 갔습니다.
- (4) 가: 영이는 어디에 갔습니까?
 나: 영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다: 아니요, (영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
 영이는 시장에 갔습니다.

(3)(4)에서 밑줄 친 성분들은 초점으로 쓰인다. 그런데, (3)에서 (가)에 대한 대답인 (나)에서 '누'의 범위에 '영이'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나머지항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의 대답을 부정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는 '영이'가 '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철수'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4)의 '학교에'나 '시장에'도 (3)의 '영이가'나 '철수가'와 마찬가지로 나머지항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곧 한국어의 자리토씨 요소는 선택항이 선택되었다는 것만 진술할 뿐, 나머지항을 '포함하는가 또는 배제하는가'에 관해서는 전제하지 않는다. 곧 자리토씨는 나머지항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다.

그런데, 중심 주제어의 표지인 {는}도 도움토씨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항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러나 범위 관계의 초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자리토씨의 경우는 초점(선택 지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비초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항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심 주제어의 표지 {는}은, 나머지항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도움토씨와 기능이 비슷하지만, 항상 비초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비초점 자리에 쓰인 자리토씨와 비슷하다. (5)의 경우에 중심 주제어인 '영이는'과 '철수는'이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 (5) ㄱ. 영이는 학교에 갔는데, 철수는 시장에 갔다.
 ㄴ. 영이는 학교에 갔는데, 철수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앞뒤 월의 내용의 대조이지, 중심 주제어의 대조는 아니다. 곧 다른 중심 주제어가 쓰인 두 월의 내용의 대조일 뿐이다. (5)의 '영이는'과 '철수는'이 대조 초점이 아님은 (6)과 같은 담화 상황에서의 쓰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6) 가: 영이와 철수는 학교에 갔습니까?
 나: 그래, 영이와 철수는 학교에 갔다.
 다: ㄱ. 아니, 영이는 학교에 갔는데,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ㄴ. 아니, 영이는 학교에 갔는데, 철수는 시장에 갔다.

(6)에서 (가)는 '영이와 철수는'이 중심 주제어이다. 이러한 중심 주제어는 (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그런데 (나)를 부정한 (다)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중심 주제어가 두 개의 중심 주제어로 분리된다. 그러면서 "영이는 학교에 갔는데"에서는 '영이'는 선택항이 되고 '철수'는 나머지항이 되며,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에서는 거꾸로 ‘철수’는 선택항이 되고, ‘영이’는 나머지항이 되었다. 그러나 (6)에서 ‘영이는’과 ‘철수는’은 선택항과 나머지항 사이에 범위 관계의 초점을 형성하지 않는다. 다만 중심 주제가 둘 이상 나타날 경우에, 한 주제는 다른 주제에 대하여 선택항이 되고 선택항에서 제외된 나머지 중심 주제는 나머지항으로 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6)의 ‘영이는’과 ‘철수는’을 대조 초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 주제가 나머지항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연히 ‘영이는’과 ‘철수는’은 부정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정의 범위에 드는 것은 중심 주제를 제외한 ‘학교에 갔다’이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중심 주제가 경우에 따라 대조 초점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른바 ‘를’ 주제의 문제

‘를’ 주제의 ‘를’을 ‘를2’라고 하자. 여기서는 ‘를2’를 주제어 표지로 보는 견해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해 둔다. 첫째로,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글에서 주제어와 장면제시어라고 하는 성분과 어떤 기능적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로, ‘를2’가 풀이씨와의 관계에서 제약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를2’가 풀이씨의 종류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를2’가 주제어와 초점 따위와 같은 월의 쓰임과 관련되는 언어 형식이 아니라, 월의 체계 내적인 통어 관계와 관련되는 언어 형식임을 나타낸다. 이런 점을 볼 때, ‘를2’는 ‘타동성’의 전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를2’를 ‘초점화’ 표지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초점을 정보의 개념으로 썼다면, ‘를2’ 주제화의 논의와 꼭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를2’를 포함한 어떤 자리토씨라도 담화 상황에 따라 ‘초점’으로 쓰일 수도 있고, ‘비초점’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인식상황에서의 시점과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이란 용법으로 썼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겹임자말월의 구조의 문제

생성문법적 연구에서는 겹임자말 가운데 다른 월성분과 교체되는 임자말을, 교체되는 성분과 관련지어 변형으로 설명하고, 겹임자말 가운데 어느 한 임자말을 주제어 또는 다른 월성분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겹임자말은 풀이씨와의 결합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겹임자말이 풀이씨의 제약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는 “사람이 둘이 간다”와 같이 셈술말이 겹임자말의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 뿐이고, 나머지 겹임자말은 모두 상태풀이씨이거나 과정풀이씨가 쓰인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주제는 풀이씨의 의미적 내용과 제약을 형성하는 그러한 성질의 문법 범주가 아니다. 따라서 겹임자말에서 {이/가} 성분이 아닌 다른 월성분이 임자말이 되는 것을 주제화로 설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제어와 표지: 강세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 강세의 역할은 앞선 연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강세는 정보구조의 해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한국어에서 정보구조의 해석은 대체로 형태론적인 표지나 어순으로써 드러나지만, 형태론적인 표지나 어순만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강세로써 구별하게 된다. 곧 강세는 정보구조의 해석에서 형태론적인 표지나 어순의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에서 강세는 정보구조의 해석에 관여한다. 그러나 강세는 형태론적인 표지나 어순으로 주어지는 정보구조의 해석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곧 하나의 월에 형태론적으로 분명하게 찾아지는 초점요소가 있어서 정보구조가 분명히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강세는 더 이상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

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강세를 부여하고자 하면, 강세는 초점요소에 부여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렇지 않고 초점에 강세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비초점요소에 강세가 부여되면 부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곧 강세의 부여는 정보구조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머리의 '은/는' 요소인 중심 주제어에 강세가 부여된다고 하여, 대조 초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의 주제어의 '강조'일 뿐이다.